

# 칠레 제헌 의회, 광업 핵심 분야 국유화 조항에 반대

칠레 The Guardian, Reuters, Bloomberg

2022/05/16



## □ 칠레 제헌 의회가 중요 광업 부문을 국유화하는 새 헌법 개정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.

- 칠레 현지 시각으로 2022년 5월 15일, 칠레 제헌 의회(constitutional assembly)가 광업 산업 가운데 중요 분야를 칠레 정부가 소유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음.
- 해당 개정안은 리튬(lithium)을 비롯한 주요 희귀 광물을 국유화하고, 석유와 구리 채굴 기업의 최대 지분을 정부가 소유하도록 한다는 등 칠레 광업 산업의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.

## □ 제헌 의회의 결정으로 군사 정권 시대 만들어진 기존 법안의 수정 가능성이 낮아졌음.

- 광업 부문과 관련한 개헌안은 과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(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Ugarte) 군사 정권 시절에 제정된 헌법을 바꾸어 칠레 광업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음.
- 칠레는 군사 정권 시절 자본가와 지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였고, 이는 칠레의 고질적인 빈부격차 확대로 이어져,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고 이에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결정한 바 있음.
- 그러나 이번에 칠레 제헌 의회가 광업 부문 개헌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, 피노체트 헌법과의 결별이 좀 더 어려워졌음.

## □ 광업 부문 관련 조항이 최종 개정 헌법에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.

- 칠레 제헌 의회가 광업 부문 개헌안에 반대했지만 이것이 광업 부문 헌법 개정의 완전한 배제를 뜻하는 것은 아님.
- 칠레는 새 헌법 개정안을 2022년 9월에 확정할 예정이며, 그때까지 헌법 조항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기회는 남아 있음.
- 광업 부문 개헌에 찬성하는 측은 칠레의 핵심 산업인 광업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, 이에 광업 관련 헌법 조항을 바꿀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동원할 계획임.